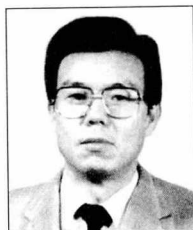


생태공원에 관한 소고

얼마 전 필자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생태팀들과 함께 함평만 답사를 갔었다. 답사시 농로에서 유희목이(꽃뱀)가 경운기에 치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현지 농민에 의하면 논물 속에서는 붕어, 송사리 심지어는 오염에 비교적 내성이 강한 황소개구리 까지도 죽는다는 말을 들었고, 논두렁에도 식물 없이 없어진지 오래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팀간의 논의 결과가 모두가 농약과 제초제의 과도한 사용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의 농촌 환경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농촌 환경의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도시환경의 지속성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생태공원의 개념과 접근방법은 지속가능한 국토 및 도시관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공원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자연보호지 유형)을 그대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생태공원은 생물의 생활과 그 환경



김귀곤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차기 환경복원녹화 기술학회 회장
본회 전문위원



을 소중히 여기는 공원, 혹은 생물이 있는 공원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태공원은 공원·녹지계획에서는 물론, 국토·도시계획, 단지계획 등에서 반영해야 할 계획요소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계획·설계되고 시공·유지 관리되어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해가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많은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생태공원을 우리나라 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공원이 아니라는 데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태공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따라서, 기존의 공원과 생태공원과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법정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타당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해보자 한다.

첫째로,

생태공원은 생물과 자연을 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공원은 인간의 이용을 배제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로,

생태공원은 자연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태적 원칙 즉, 다양성, 순환성, 안정성, 자립성에 가까운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공원이어야 한다. 푸른 공간이 있으나 들

새나 곤충들이 서식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공원과 는 달라야 한다.

셋째로,

생태공원은 도시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는 공원이어야 한다. 특히, 사라져 가는 종(species)보관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공원·녹지체계와는 다른 생태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

넷째로,

유지관리가 별로 필요 없는 공원이어야 한다. 이른바, 생태적 과정에 의해서 스스로 조절되는 공원이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농약이나 살충제를 투입하고, 잔디 깎기를 해야만 하는 에너지 고(高)투입 공원과 는 달라야 한다.

생태공원의 법정공원화는 물론, 그 본래의 개념과 접근방법을 충실히 활용하여 조성하고 운영해 나아갈 때에 생태공원은 이 시대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조경 및 환경복원분야의 영역을 넓히는 결과로 귀착될 것으로 확신한다. ▲▲